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An Inquiry on Teachers' Perceptions of Education about Death Concepts in Kindergarten Children

양진희(Jin-Hee Yang)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education about death concepts in kindergarten children. Twenty kindergarten teachers were interviewed for this qualitative study. Results were that most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the necessity of the practice of the education about death concepts for kindergarten children; most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zed that all kindergarten teachers need t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for the successful practice of education about death concepts for kindergarten children; most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zed that education about death concepts needs to be includ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Key Words : 죽음개념 교육(education of death conception), 죽음의 의미(meaning of death), 교사의 경험과 인식(teac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

1. 서 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죽음을 예약 받게 되며,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나, 삶과 죽음의 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존재하다, 함께 종말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Morgan과 Morgan(1977)은 죽음의 의미를 철학적, 역사적, 심리학적, 종교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의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세계관과 문화적 가치가 역사

¹⁾ 남부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Yang, 864-1 Wolgye-dong, Gwangsan-gu, Gwangju 506-706, Korea
E-mail : jinheey@nambu.ac.kr

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의미도 변화한다고 보았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이 궁극에는 죽는다는 보편성의 개념(Childer & Wimmer, 1971) 내지는 필연성의 개념(Bolduc, 1972), 한번 죽게 되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불가역성의 개념(Hornblum, 1978),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기능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멈추어서 재생할 수 없게 된다는 정지의 개념(White, Elsom., & Prawat, 1978) 내지는 비기능성의 개념(Kane, 1979)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란 적어도 위와 같은 하위개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유아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아들은 죽음을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의 종말로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유기체와는 달리, 인간은 죽은 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Gartley & Bernasconi, 1967). 유아의 죽음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Hoffman & Strauss, 1985; Orbach & Glaubman, 1987; Smilansky, 1981a; Walco, 1982)은 유아가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죽음의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는 연령과 발달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뿐 아니라(김남주, 1983; Gartley & Bernasconi, 1967; Melear, 1973; Nagy, 1948),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 양상에 따라라도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이해력은 달라진다(Furman, 1974; Kasternbaum & Costa, 1977; Smilansky, 1981a; Vernon, 1970)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Nagy(1948)는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는 발달 과정을 연령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유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구에 의하면, 첫 단계는 다섯 살 이전의 단계로, 이 시기에는 유아들이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죽음을 맞이한 신체는 단순히 꿈을 꾸듯 잠을 잔다거나, 또는 어디론지 멀리 여행을 떠나는 정도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있어 죽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단계는 다섯 살에서 아홉 살 이전의 단계로, 이 시기에는 죽음을 구체화함으로써, 죽음은 현실세계와 분리된 세계로 떠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있어 죽음은 인간의 삶의 끝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아홉 살에서 열 살까지의 단계로, 이 시기에는 죽음을 인간의 삶의 마지막 일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한다. Nagy(1948)의 주장과는 달리, 출생 후 2년 이내의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심리학자들도 있다(Gesell & Ilg, 1946; Anthony, 1967). 그러나 이 시기의 영아와 걸음마기 유아들에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2세 정도의 영아들도 자신에게 친숙한 대상이 시야에게 사라지는 부재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는, 언어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울음이나 신체적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행동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Kastenbaum, 1967). 이는 비록 3세 이전의 영아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죽음이라는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은 가지고 있다(Maurer, 1966)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죽음 개념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김상희, 1986; 정은미, 1999; Aldrich,

1993; Cotton & Range, 1990; Evans, 1982; Gordon, 1979; Grollman, 1976, 1990; Krosnow, 1992; Lagorio, 1993; Nelson, 1979; McIntier, 1993; Melear, 1973; Schonfeld & Kappelman, 1990; Schaeffd & Kappelman, 1992; Ward, 1993; Westmoreland, 1996)을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아들에게 죽음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연구들은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하는 죽음의 개념을 정의하는 연구들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인의 죽음에 대한 연구 및 죽음을 선고받은 암과 관련된 죽음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수와 범위가 실로 방대하다 할 수 있다. 아동학 분야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죽음에 대한 이해과정을 분석한 Nagy(1948)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서양에서는 유아발달과 죽음과 관련된 연구들(Aldrich, 1993; Cotton & Range, 1990; Evans, 1982; Grollman, 1990; Krosnow, 1992; Lagorio, 1993; McIntier, 1993; Schonfeld & Kappelman, 1990; Schaeffd & Kappelman, 1992; Ward, 1993; Westmoreland, 1996)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도 다양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아의 죽음개념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권성자, 1984; 권혜진, 1980; 김남주, 1984; 김양남, 1993; 서현아, 1998; 이준숙, 1992; 정경숙, 1985, 1998; 정은미, 1999)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결 같이 유아기에도 죽음개념을 이해시키는 죽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김상희, 1986; 이정희, 1988; 정경숙, 1998)을 살펴보면, 여전히 유아의 죽음개념 형성이나, 죽음개념 형성을 위한 중재효과 및 유아의 발달

에 따른 죽음준비교육과 관련된 연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 유아에게 죽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죽음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Childers & Wimmer, 1976; Schaeffd & Kappelman, 1992; Walsh, 1980; Ward, 1993; Westmoreland, 1996),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저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죽음이란 우리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 죽음이란 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죽음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의내리는 죽음이란, 현존하는 삶과의 이별이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가슴 저리는 이별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란 말은 꺼내어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죽음이 곧 우리 삶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죽음이란 우리가 숨기고, 뒤로한다고 하여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죽음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는 데 있어서도 말이다.

나이 어린 유아들은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다거나,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환상을 갖게 되는 경향이 높다

(Nelson, 1979). 어린 나이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이별을 경험한 유아에게 있어 죽음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두려운, 공포 그 자체 일 것이며,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은 백설 공주가 왕자의 입맞춤에 다시 깨어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한 유아에게 있어 죽음은, 행복한 환상 그 자체일 것이다. 유아에게 있어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유아에게 죽음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해시키고, 교육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다(Gordon, 1979). 성인들이 유아들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하고, 보다 솔직하게, 그리고 지나친 감정의 동요나 과장됨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죽음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Grollman, 1978). 성인이 유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죽음에 대하여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은 유아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들(Evans, 1982; Furman, 1974; Grollman, 1978; Walsh, 1980)은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유아들은 더 이상 삶에 있어서 죽음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유아에게 죽음에 대하여 교육하고자 할 때, 주변 동식물의 죽음을 미래 접해 보도록 성인이나 교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교사는 죽음에 대한 정서적인 도움뿐 아니라 인지적인 학습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죽음개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개방적으로 언급하거나, 학습이나 토론 주제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나이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더욱 꺼리는 실정이다(권성자, 1984; 김남주, 1983; 김상희, 1986; 정경숙, 1992). 유아기에 죽음개념 교육이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유치원 현장에서 나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1988년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연구자가 맡았던 5세 유아가 한 날 한 시에 형과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언어장애를 일으키며 고통 받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이 유아의 가족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계속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수영을 하다 물에 빠진 형을 구하기 위하여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속으로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이 유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에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항상 자신을 잘 돌보아주는 세 살 위의 형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그 사고로 인하여 한 가족의 행복은 곧 어둠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유아가 이해하는 죽음이란 고작, 동화에 나오는 깊은 잠을 자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장례식이 있던 날, 그 아이는 조문객들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가, 즐겁게 축하해야 하는 잔칫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이는 손에 과자하나를 들고 장례식

이 이루어지는 넓은 마당을 이리저리 기뻐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지난 후 유치원에 온 그 아이는 “선생님 우리 아빠랑 형아는요, 백 밤만 자면 온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착한 사람은요 죽으면요 하늘나라로 갔다가, 하느님이요 다시 살려 준대요.”라며 손가락을 펴서 연구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와 형이 100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 다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유치원 교사경력 이 2년도 채 되지 않던 때라,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자신도 능력도 없었다. 무엇보다 며칠 후면, 아빠와 형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빠와 형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점차 어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된 어느 날 그 아이는 말수가 적어지고, 급기야 8개월 만에 언어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보호자인 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고, 고통과 절망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곳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 아이의 언어치료를 위하여, 대도시로 이사를 한다고 하였다. 그 때 그 아이의 나이는 8살 이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구자 역시 유아에게는 죽음과 같은 우울한 주제보다는 밝고 명랑한 주제를 다루므로써 유아들에게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연구자에게는 지금까지도 오래된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교사로서 내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무능함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도 연구자는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은’

또 다른 유아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때마다 연구자는 나이 어린 유아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 시켜야 하는지,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자문하곤 하였다. 이에 유아에게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이며,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본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김상희, 1986; 이정희, 1988; 정경숙, 1988; Aldrich, 1993; Cotton & Range, 1990; Evans, 1982; Grollman, 1990; Krosnow, 1992; Lagorio, 1993; McIntier, 1993; Schonfeld & Kappelman, 1990; Schaeffld & Kappelman, 1992; Ward, 1993; Westmoreland, 1996)은 죽음개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유아일수록 죽음에 대해 잘 적용할 수 있으며, 죽음에 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보다 쉽게 죽음을 인정하고,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죽음에 관하여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기에 실시되어야 마땅하면서도, 죽음개념 교육의 실시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죽음개념 교육이다. 유아가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 죽음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유치원 현장의 교사들이나 성인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김상희, 1986; 이정희, 1988; 정경숙, 1998; Grollman, 1990; Westmoreland, 1995)은 죽음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행동이 유아들이 죽음개념을 획득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탄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교사가 스스로 죽음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심리학적 현상에 익숙해야 하며, 교사들은 죽음에 관한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죽음과 관련된 태도, 관습, 법률, 제도의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유아에게 있어 죽음은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실제 경험이라는 사실과, 죽음이란 주제는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니라 유아기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죽음개념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교사가 죽음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거나, 죽음을 자신의 종교적 성향과 결부시켜 편협하게 해석하려 한다면, 이러한 교사의 성향이 유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사는 유아가 죽음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을 갖지 않고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이 먼저 죽음개념과 죽음교육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공적인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서의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교사들이 당면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유아의 긍정

적인 이해를 돕고, 유아에게 올바른 죽음개념 교육 및 성공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둔다. 이상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실시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J도 지역의 공·사립유치원교사 20명이다. 본 연구 참여자의 유치원교사 경력은 평균 11년~18년이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배경변인을 다음과 같이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절차

1) 연구 사전 승인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4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J도 공·사립유치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참여 협조의사를 묻는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자로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는 48명이었다. 이 교사들의 질문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따른 면담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고 판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변인

사 례	교 사 명	교직경력	학 력	결혼 및 자녀
1	김명희, 35세	11년	대 졸	기혼, 8세딸
2	황정희, 36세	11년	대 졸	기혼, 6세 아들
3	강성숙, 40세	15년	2년대졸	기혼, 12세 딸, 9세 아들
4	박명옥, 42세	17년	대학원졸	미혼
5	이정숙, 43세	15년	대 졸	기혼, 13세 딸, 10세 딸
6	황미경, 37세	15년	대학원졸	기혼, 11세 아들, 9세 딸
7	양새라, 32세	11년	대 졸	기혼, 8세 아들
8	오상아, 37세	13년	2년대졸	미혼
9	최경미, 38세	14년	대학원졸	미혼
10	형민아, 41세	16년	대 졸	기혼, 12세 딸, 10세 딸
11	이숙희, 33세	11년	2년제졸	미혼
12	김선아, 39세	15년	대 졸	기혼, 10세 딸, 7세 딸
13	황소희, 38세	15년	대학원졸	미혼
14	이민숙, 41세	16년	대 졸	미혼
15	박명자, 34세	12년	대 졸	기혼, 8세 아들, 5세 딸
16	오경옥, 37세	14년	대 졸	기혼, 9세 딸, 7세 딸
17	박상희, 38세	16년	대학원졸	기혼, 10세 딸, 7세 아들
18	이민희, 41세	18년	2년제졸	기혼, 14세 딸, 11세 딸
19	이경숙, 33세	11년	대학원졸	미혼
20	박소민, 36세	15년	대 졸	기혼, 9세 아들, 6세 딸

단되는 교사 32명을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32명의 교사와 2003년 2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사전 면담시간을 가졌으며, 사전 면담시간을 통하여 예비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죽음개념과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예비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죽음개념을 자신의 종교적인 성향과 지나치게 결부시켜 편협하게 해석하려 하는 경향이 있거나,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하여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죽음개념과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면담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 그리고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따른 면담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면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사 1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명을 본 연구의 심층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신분비밀유지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 명을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 활동에서 수집된 면담자료는 일체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3년 3월 2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한 후, 유치원의 정규교육활동이 끝난 오후 시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본 연구자와 면담자가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장소는 면담자가 근무하는 유치원교실이나 상담실, 조용한 공원, 아늑한 커피숍, 또는 면담자나 연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면담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다.

면담은 유아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유치원 현장에서 죽음개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 죽음개념 교육 실시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는 유아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등, 유치원 현장에서의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실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면담은 연구 참여자 각각 3회씩 총 60회가 이루어졌으며, 비공식적 면담은 면담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대화를 받아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어색함을 막고 면담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은 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실시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면담이 끝난 직후 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3년 3월 2일부터

2003년 7월 31까지 5개월간에 걸쳐 행해졌으며,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 측정법(Merriam, 1988)에 의하여 심층면담, 심층면담 과정을 기록한 연구자의 연구일지, 기타 교사들의 기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전사 및 자료의 통합, 영역 분석, 자료 분류 및 분석, 분류된 내용의 해석 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접 자료의 전사된 내용이 바르게 전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 교사들과의 확인과정을 거쳤으며(이용숙·김영천, 1998), 전사된 내용은 수집된 모든 자료와 통합하였다. 통합된 자료는 수차례 정독하면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점, 경험과 의미 등 연구 참여자의 경험세계와 의미세계를 중시하고(양진희, 2005), 교사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Spradley, 1980)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통합된 자료의 특성들을 상세히 파악하여 의미를 가질만한 내용들에 각 내용을 대표할 제목을 기입하여 미시적 문화기술지를 작성하고, 수집된 자료가 주로 어떠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영역별로 범주화함으로써(김영철, 2000), 공통된 제목들을 묶는 영역분석(Spradley, 1980)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료를 영역별로 코드화 하여, 자료의 위치, 자료의 제목, 자료의 내용을 분류하여 자료에서 나타난 특성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3단계에서는 영역별 하위특성들을 범주화하여 중간분류 제목을 정하고, 다시 중간분류 제목을 포괄하는 대 분류 제목을 정하는 방식

으로 자료의 분류 체계에 따라 상위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4단계에서는 범주화된 상위특성들의 의미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대·소주제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구자와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과 대학원생 2인은 분류된 내용의 의미를 객관화하는 해석(유혜령, 1998)을 하였으며, 해석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확인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해석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특성들이 범주화하여 체계화된 상위특성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며,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실시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이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아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에게 죽음개념을 교육시키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경력 17년째인데, 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내가 맡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부모나, 가족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보다는 밝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쉽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광경이고, 당사자들에게

는 슬프고 아픈이죠.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마도 우연히 길을 가다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거라 생각해요.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그렇지만, 만약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 전혀 아는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했을 때에도,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아이들의 시야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일거라 생각해요. 만일 죽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아이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나 아픔, 깊은 상처를 조금은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교육을 실시한 경험은 없지만, 유아에게 죽음개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월 15일, 사례 4, 박명옥 교사 면담)

교사들은 현장에서 유아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유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었을 때, 유아들이 부딪히는 죽음의 사태에 대하여 받게 될 충격을 완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교육의 차원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때도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좀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신데렐라, 백설 공주, 얼음공주 등을 좋아하고... 동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죽음을 마치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왕자가 뽀뽀를 해주면 마법이 풀려서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한다거나...(중략). 죽음이 사실은 동화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죽음에 대해 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과 동화는 다르니까, 왜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날 때, 아이들이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동화 같은 환상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방법을 모르니...

(4월 12일, 사례 16, 오경옥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환상이 오히려 죽음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유아들이 죽음의 비가역성 개념을 이해하기 이전에 죽음을 일시적이며, 뒤바꿀 수 있는 가역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죽음은 특유의 마술적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술적 사고가 풀리게 되면,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건처럼 잠자는 것,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연구결과(Sternlicht, 198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의 개념에 대하여 잘못 형성한 인식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죽음의 사태를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유아가 동화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죽음개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말을 꺼내는 일을 많이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죽음은 그리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먼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유아들에게도 그 외 예라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유아들이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애완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중략) 그 이후, 죽음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경험하고 싶지 않아, 식물이나 동물을 전혀 키우지 않고, 정도 주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금붕어나 햄스터를 키운다고 졸라대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도,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이와 격리되고, 이별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큰 상처가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이 마치니 말이에

요. 유아들이 죽음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사태를 조금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4월 26일, 사례 18, 이민희 교사 면담)

교사들은 죽음이란 유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죽음개념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는 유아들은 자신이 아끼던 동물과 식물의 죽음에 대해 놀라게 되며(Anthony, 1980), 죽음개념을 이해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유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공포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Gorden, 197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일상생활을 속에서 자신이 아끼던 동·식물 등과 같은 주변의 누군가의 죽음을 겪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분리'로 인하여 유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감을 느낀다거나 격리불안을 경험하지 않도록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어릴 적, 죽음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갑작스럽게 겪게 될 죽음의 의미는 유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죽음이 뭐냐고 물으면 난감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기쁜 것만 보여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을 피하는 지도 몰라요. 저는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 질문할 때, 솔직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잠자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유치원 앞에서 산 병아리가 시들시들하다 죽게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할머니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는 병아리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곧 잠에서 깨어날거라고 하면서 4일이 넘게

병아리는 채집가방에 넣고 유치원에 온 적이 있었어요. (중략)... 반 아이들이 놀이터 정월에 묻어주고 나무로 십자가 표시를 해 놓았어요.

(6월 11일, 사례 15, 박명자 교사 면담)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의 이야기만 듣고 죽음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진짜 죽음이란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충격과 분노와, 성인에 대한 신뢰감이 불신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맡았던 유아의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몇 년전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은 한 아이가, 매일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는 가족들의 말을 믿고, 12시경만 되면 마중을 나오던 엄마를 찾느라 창문을 내다보고 실망하고, 기다리다 실망하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중략)... 돌아오지 않을 엄마를 막연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상처를 주는 거라 생각해요.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죽음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도 말이에요.

(3월 14일, 사례 7, 양새라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 성인들은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죽음의 개념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부모들이나 성인들은 유아들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을 경험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장난처럼 쉽고 가볍게 넘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성인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유아가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기회를 박탈하고,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지니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으며,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제시한 이상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물론이며,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죽음에 대한 유아들의 올바른 이해 및 태도의 형성이며, 둘째, 죽음의 사태에 대한 유아들의 대처 능력 형성이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죽음에 대한 유아의 올바른 이해와 태도의 형성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1)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정과 수용

유아들이 죽음개념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은, 유아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아의 연령과 관계없이 죽음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성인의 태도에 따라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생활을 하면서, 내가 맡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겪은 아이들을 바라만 보아야 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낯의 일 같지 않아요.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의 입장이 되어보니, 더 가슴에 다가오더군요. 죽음에 대해 아이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경우와,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었던 두 경험이

다 있어요. 매일 유치원까지 마중을 나오는 한 아이의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녀오다 그만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죽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할머니의 죽음은 참으로 큰 충격이었는데요, 할머니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아이가 5살이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병풍 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마구 흔들어서 깨웠다고 해요. 싸늘하게 식은 할머니의 시신에...(중략). 그 아이는 죽음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고 있다고 생각한거죠. 거의 3개월 이상은 밤에 불끄는 것을 싫어하고, 어두운 것에 공포를 느끼고,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는 바지에 오줌을 저린 다거나 퇴행성 행동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너무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어른들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느라 현명이를 돌아볼 정신들이 없었던 거죠. 만일 그 아이가 죽음에 대해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성인들이 이해했다면, 그래서 그 아이도 할머니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현명이는 할머니의 죽음을 보다 편안하게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요.

(6월 14일, 사례 14, 이민숙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을 때 성인들이 유아에게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면 유아들은 죽음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편안하게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병아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5일째 될 때까지 절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죽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고 말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그 아이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아리가 썩어서 죽어가는데도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하는 아이를 보면서, 죽음이란, 숨을 쉬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고...(중략)... 그 아이가 병아리의 죽음을 인정하고, 어느정도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반 아이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무덤앞에 꽂아주고...(중략).. 그런데, 한달정도 지나니깐 서서히 병아리를 잊어버리게는 되었는데, 문제는 할머니에 대한 불신에...(생략)

(6월 11일, 사례 15, 박명자 교사 면담)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성인들이 솔직하고 명확하게 죽음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에게 죽음을 이해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죽음은 살지 않고,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유아가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Furman, 1975)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과장된 환상으로 인식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됨으로써, 죽음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왜 공주과에 속하는 애들은 죽음을 환상 그자체로 꿈을 꾸기도 해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화를 즐겨 읽는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것도 공주과 동화, 백설공주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한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 아이가 결석을 하게 되어서 대집단 활동 시간에 그 아이가 결석한 이유에 대해 말해주는데, 공주과 여자아이가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답 한다는 말이, “선생님! 공주가 죽으면요, 왕자가 뽀뽀를 해주면 살아나서 행복하게 사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누가 뽀뽀를 해줘야 살아나는 거예요?”라고 묻더군요. 그날 애들이 논쟁으로 분분했었는데, 대체로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환상갈

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죽으면 어떤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살려줄거라고 강하게 믿는 거죠.

(3월 22일, 사례 1, 김명희 교사 면담)

죽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좋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딱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마냥 동화 속에서만 살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과 동화의 세계가 너무 동떨어졌을 때, 성인들은 동화적 죽음과 현실적 죽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 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월 28일, 사례 9, 최경미 교사 면담)

어렸을 때 지나치게 환상적인 꿈을 꾸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현실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고, 아름답고, 비현실적이며, 재미난 것만을 몸에 익혀온 아이들이,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환상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정작 어렵고 힘든일을 겪게 된다면, 아마도 충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쉽게 죽음을 택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란 무겁게 다루고 너무 현실적으로 유아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5월 28일, 사례 13, 황소희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들이 공상의 세계와 동화적 세계에서 현실과 괴리감을 느낌으로서, 죽음에 대하여 환상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환상을 가지는 것은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열망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화적인 죽음의 개념과 현실적인 죽음의 개념 사이에서 유아들이 가지게 될 환상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경험한 경우가 바로 그 경우죠. 그 아이는 할아버지 죽음을 충격적으로 겪고 난 후, 엄마가 자기 눈에서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고는,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의 옷자락을 꼭 잡고는 연속 울어댔었어요. 병풍, 어두운 곳만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떨어지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엄마가 잠을 자면 살짝 일어나서 손을 엄마의 코에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곤 했다고 해요. 꽤나 오랜기간 말이예요. (6월 25일, 사례 14, 이민숙 교사 면담)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성인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편견을 가지게 한 것도 죽음에 대한 성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지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죽음은 누구나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주 먼 훗날...(중략)...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죽음의 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인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월 21일, 사례 8, 오상아 교사 면담)

교사들은 죽음에 대한 성인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유아에게 죽음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지나친 환상을 가지게 된다면, 또는 지나친 공포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성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 또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높다 (Nelson, 1979). 그러나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비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성인이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환

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공포나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면,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죽음의 개념에 대하여 유아들에게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한다(Gordon, 1979).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환상을 가진다거나, 지나치게 공포를 갖는 것은, 모두 죽음개념에 대한 교육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의 성과는 유아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Grollman, 1989).

(3) 죽음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는 삶

죽음은 유아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보여주고, 꿈꾸게 하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하는 삶, 그 자체이다. 유아들에게 있어 행복한 아침과 행복한 시간을 가르치는 것만큼, 죽음의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란 행복과 함께 공존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말,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했던가요? 죽음도 행복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이죠. 죽음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누가 교통사고가 났네, 지진으로 몇 명이 죽었네, 전쟁 사망자가 몇이네.. (중략), 죽음은 그만큼 우리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인식하고 싶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지..(중략)... 행복이 우리 인간의 목표라면, 누가 이렇게 말했죠... 죽음이 나의 목표라고.. 우리는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한 두 번은 겪어야 한다면, 죽음을 멋지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아들도 마찬가지죠.

(4월 16일, 사례 10, 형민아 교사 면담)

아이들도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죠. 드라마, 만화, 그리고 마법전사들한테 당하는 악당들.. 문제는 죽음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하는 정도는 마치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 우리 엄마아빠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중략).. 바로 우리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의 것이고, 죽음은 남의 것..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악당은 되고 싶지 않는 동극을 할 때처럼 말이에요. 애들은 동극 때도 형사를 한다고 하지, 총에 맞아 죽는 도둑은 다 싫어해요.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죽음도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것, 그것은 우리 아이들도 언제 어디서 그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겪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언제 복권을 맞을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는 죽음...(중략). 죽음도 준비시킨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5월 14일, 사례 11, 이숙희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준비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대 유아들은 죽음을 일상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죽음이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유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죽음이란 행복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공존하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식시킴으로써,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와 삶을 재인식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보다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교육'(김옥라, 1984)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죽음의 사태에 대한 유아들의 대처 능력 형성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들이 죽음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보다 지혜롭게 죽음에 대처하는 능력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1) 죽음에 대한 '죄의식'과 '자책'의 극복

유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을 때, 마치 자신 때문에 죽음의 사태가 다가온 것처럼 인식함으로써, 죽음에 대하여 죄의식과 자책을 가지게 된다(Walsh, 1980).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가지게 될 죄의식과 자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웬지 모르지만 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가 죽은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군 게 생각하면 미안한 기분이 들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잊지 마.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신을 용서해줘. (Michaelene, 1998)

병아리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켰을 때, 그 아이는 며칠동안 자신을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병아리를 너무나 만져서 죽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물론 그 생각은 할머니가 '병아리를 그렇게 자꾸 만지면, 사람 손을 타서 빨리 죽게 된다.'라고 말해 주었는데, 자기가 병아리를 품에 안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서 그렇게 되었다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어도.....

(5월 17일, 사례 4, 박명옥 교사 면담)

얼마전에 유치원 현관 대형 수족관에 금붕어가 연달아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찍 유치원에 온 몇 명의 아이들이 난리가 난거예요. 그전날 금붕어 당반이 누구였냐 추적하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결국은 은하와 성미라는 아이로 밝혀지고, 금붕어 밥은 조금만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주어서 죽었다는 난리가 났어요..(중략)...

은하하고 성미는 자기들 때문에 금붕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해서 인지, 유치원에서 하루종일 말도 하지 않고, 물론 아이들도 마구 놀러 댔죠..(중략).. 은하 엄마가 말하는데, 1주일이 넘도록 자기 때문에 금붕어가 죽어서 유치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많이 우울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은하와 성미는 금붕어에게 그날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 애들은 자기들이 밥을 주지 않아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마음 아파했던 거죠. 나중에 수족관 청소하는 아저씨 말로는 수족관 물이 너무 탁하고, 밖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7월 26일, 사례 17, 박상희 교사 면담)

몇 년 전, 한 아이가 자기 삼촌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삼촌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나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삼촌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을뻔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고도 쉽게 사용하는 말 중의 하나가 '네가 말을 안들으면, 엄마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니? 죽지!'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 아이도 삼촌이 삼촌말을 듣지 않으면, 삼촌이 채수가 없을 거라고 평소에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중략). 아무일이 없다면 그런 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말처럼 된다면 아이들은 정말 죽음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너 때문이 아니라고 바르게 이해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그 아이는 자기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이나,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6월 17일, 사례 8, 황미경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신의 주변의 동·식물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전가함으로써, 죄의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유아에게 죽음이나, 갑자기 당하게 될 사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유아들이 주변의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식을 느낄 때, 성인이나 교사들이 할 최우선적인 일은 유아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경청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죽음이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유아를 안심시켜주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Michaelene, 1998; Walsh, 1980).

(2)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의 극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충격으로 경험한 유아들은 죽음에 대하여 슬픔과 비탄으로 반응하며, 때로는 분노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은 죽음에 대하여 분노와 슬픔을 가지는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뿐 아니라, 성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와 슬픔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화들을 많이 보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지 잘은 모르겠지만, 때로 아이들은 가족이나 누군가의 죽음을 겪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무지 닮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을 때, 맞은 편 차를 운전하던 아저씨가 난폭운전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커서 복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면, 분노를 없애려고 교사가 노력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6월 20일, 사례 20, 박소민 교사 면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요. 현실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남편이 죽자 따라 죽은 아내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데, 남은 아이들은 너무 슬퍼서 거의 버려진 상태였잖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의 죽음으로 정서장애까지 일으켰고... (중략)..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 누군가와 이별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상황이고, 이겨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유아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죠. 유아들도 성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성인이 될 테니까요. 어릴 적 죽음의 슬픔을 벗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키워주는 일이 교사가 할 일이지요.

(5월 21일, 사례 12, 김선아 교사 면담)

성인이나 교사들은 유아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지나치게 분노의 감정과 복수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바르게 지도하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 죽음개념 교육의 목적이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될 슬픔, 비탄, 분노, 복수 등과 같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심리적 상태를 잘 극복하고, 죽음의 상황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면, 이러한 역할은 성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3)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극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충격으로 경험한 유아들은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갖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은 죽음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는 유아는 자신과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강한 격리불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유아들에게 편안하고 쉽고, 솔직하게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죽음은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일테니까요. 내가 말했던 한 아이가, 돌아

가신 할머니를 입관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중략) 할머니한테 수의를 갈아입히는데 할머니 코에서 피가 주룩 흘러내리는 것을 민수가 보았다는 거예요. 뺏뺏하게 굳어 있더니... (중략). 그 이후부터 굉장히 무서움을 타고..

(6월 28일, 사례 3, 강성숙 교사 면담)

우리반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죽으면 모두가 유령이 된다고... 말을 안들으면, 죽어서 피 흘리는 귀신이 된다고 어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적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는 했지만, 부모나 성인들이 유아들에게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특히 귀신나올까봐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받지 못한 경우에 더욱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공포를 느끼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30일, 사례 12, 김선아 교사 면담)

유아들은 때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심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잠자리에 든다거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성인으로부터 올바르게 이해받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죽음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이 죽음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보다 슬기롭게 죽음의 사태를 이해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유아들이 보다 덜 충격적이고, 덜 두려워하고, 덜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성인들이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실시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당면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 개인적인 차원, 교육정책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 교사 개인적 차원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주는 우울한 뉘앙스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1)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

유아들이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교사나 또는 성인들은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사실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죽음개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죽음개념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Walsh, 1980).

제가 망설이는 것은 솔직히 죽음개념을 어떻게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도, 그리고 좋은 방법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4월 30일, 사례 12, 김선아 교사 면담)

죽음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인지, 죽음개념에 대해 한마디로 죽음이 무엇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도 서있지 않기 때문에, 애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능력이 부족하죠.

(4월 12일, 사례 16, 오경옥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나, 대학양성 과정에서 죽음과 관련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현직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다닐 때, 유아의 죽음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는 적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으니, 더군다나 죽음이 뭐 그리 쉽게 다룰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저는 없죠.. 죽음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중요한데, 대학 전공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현직 교사 교육 연수에서도 다루어야 할 주제인데.. 구경못했어요. 만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효과가 높을거라 생각해요.

(6월 28일, 사례 3, 강성숙 교사 면담)

교사들은 자신들이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과 관련된 기초지식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게 된다거나, 그러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대학양성 프로그램이나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면,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유아교사들의 직전교육 및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주는 우울한 뉘앙스

유아들과 이야기할 때 성인들은 죽음의 문제

를 토론하는 것을 회피하고 꺼리는 경향이 높다 (권성자, 1984; 김남주, 1993; 김상희, 1986; 정경숙, 1998). 교사들은 유아에게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죽음'이란 주제 자체가 우울함을 주는 무거운 주제라는 점을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실시상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웬지 죽음하면, 우울해지잖아요. 아이들과는 밝고 명랑한 주제를 다루어야 저도 기분이 밝아지는 것을 느껴요. 나이탓인가? 아무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고, 지리고, 어두워서, 주제로 다루고 유아들에게 교육한다는 사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5월 17일, 사례 4, 박명옥 교사 면담)

구태여 일을 내어 슬픈 주제로 분위기를 어둡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죽음개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피하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주제를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모두의 기분을 밝게 해주...

(6월 11일, 사례 15, 박명자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울한 뉘앙스로 인하여,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는 달리, 교사들은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슬프고, 공포와, 두려움과, 비탄을 자아낼 수 있는 무거운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 교육 정책적 차원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

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이 정상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죽음 주제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1) 정상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아 죽음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이 유아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많이 어렵죠. 물론 알고는 있지만, 정상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정신없이 바쁘는데,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거나 다루어지지도 않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6월 11일, 사례 15, 박명자 교사 면담)

연간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죽음개념 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여 사실상 유아들에게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6월 25일, 사례 14, 이민숙 교사 면담)

만일 정상교육과정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로 제시된다면,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도서나 지침서를 활용하고, 연수도 받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상교육과정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어렵다고 생각되어요.

(3월 21일, 사례 8, 오상아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이 정상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교사교육을 실시한다면,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에는 죽음개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실정에서 별도의 주제로 설정하여

교육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70년대 이후부터 죽음이라는 주제를 학교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유치원을 비롯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김옥라, 1994; Gordon, 1979; Schaeffl & Kappelman, 1992; Ward, 1993).

(2) 죽음 주제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의 부족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현장에서 유아 죽음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중의 하나로 죽음 주제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의 부족을 들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또는 유아들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이고 질문할 때, 교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죽음에 관한 자료를 미리 모아두어 적절한 때에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Tallmer, Formanek, & Tallmer, 1974).

죽음주제를 다룬 상식도 부족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유아에게 죽음개념을 이해시킬 교육용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은 힘들죠.

(5월 28일, 사례 13, 황소희 교사 면담)

애들에게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고작 동화책을 선정하는 정도예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할머니’와 같은 동화들은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동화잖아요. 만일 교육청에서 죽음 주제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를 많이 지원해 준다면, 잘 해볼 자신이 조금은 있는데,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3월 22일, 사례 1, 김명희 교사 면담)

죽음이란 중요한 주제잖아요. 무겁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상 교육용 자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중략). 현장에서 유아에게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한다면, 먼저는 다양한 교육용 자료들이 보급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7월 26일, 사례 17, 박상희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 교육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다양한 교육용 자료들이 지원된다면,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현장에 죽음개념 교육과 관련된 교육용 자료들은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하여 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용 자료를 구입하는 실정에서,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에 대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사회 문화적 차원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으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과 죽음을 보는 사회문화적 시각의 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1)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학부모의 태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교사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중의 하나로 죽음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을 들고 있다.

한번은 우리 반 한 아이의 이모가 폐암으로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날 화제가 '죽는다는 것'에 쏠리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가능한 한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대답을 해줬어요...(중략).. 항의 전화 받았잖아요. 한 아이가 저녁내 엄마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경기를 일으켰다고...(중략).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데, 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들려줘도 짧은 인생이라면서... 항의를...

(5월 14일, 사례 11, 이숙희 교사 면담)

어머니들은 아이들은 행복하고 밝은 것만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능한한 죽음보다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바라죠. 그럴때마다 꺾이게 되죠..

(6월 20일, 사례 20, 박소민 교사 면담)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행복한 것만을 꿈꾸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먹이고, 가능하면 좋은 옷을 입히고...(중략).. 죽음을 가볍게 이야기거리로 올릴 수 있지만,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망설여져요. 어머니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가르쳐준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14일, 사례 14, 이민숙 교사 면담)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질 때, 부모들은 죽음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유아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Walsh, 1980).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밝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반면, 죽음에 대해서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죽음’을 보는 사회문화적 시각의 차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죽음’을 보는 사회문화적 시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교사들은 죽음이 종교적인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는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아에게 죽음에 대해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환생한다거나, 또는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존재하고 육체만 죽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은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 한 학부모로부터 질책 아닌 질책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4월 16일, 사례 10, 형민아 교사 면담)

불교신자들의 아이들은 가끔 죽으면 소나 돼지나 날아다니는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차이에서 오는 죽음개념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어려움을 느끼죠..

(6월 17일, 사례 8, 황미경 교사 면담)

저는 누구나 죽는다는 정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해요. 어떨때 알아듣는 아이들에게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자세히 설명할 때도 있지만, 죽음은 그리 쉽게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종교적인 차이를 가질 때는 어렵죠..

(3월 28일, 사례 9, 최경미 교사 면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한다는 말을 무심히 던졌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죽음교육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참고로 말하면..

(3월 14일, 사례 7, 양새라 교사 면담)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이 종교와 결부될 때는 현장에서 죽음개념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을 보는 시각적 차이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의 입장에서, 죽음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성공적인 죽음개념 교육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유치원 현장에서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유아의 죽음개념교육을 실천하면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교사면담을 통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유아에게 있어 죽음개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유아의 죽음개념 발달과 유아의 연령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김상희, 1986; 정경숙, 1985, 1992; 이정희, 1988; 이준숙, 1993; Melear, 1973; Kastenbaum, 1967; Nelson, 1979; Rochlin, 1967; Gordon, 1979; Grollman, 1976; Evans, 1982; Furman, 1974)들과는 달리, 유아의 죽음개념 형성은 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죽음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성인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

의 교사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험의 유무가 유아의 죽음개념 발달 및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의 죽음개념 발달과 연령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불일치한 연구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실시시기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교사들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유아의 올바른 이해와 태도의 형성, 그리고 죽음의 사태에 대한 유아들의 대처 능력의 형성을 들었다. 교사들은 유아에게 죽음개념 교육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인 죽음에 대한 유아의 올바른 이해와 태도의 형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을 때, 죽음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죽음에 대하여 보다 편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의 세계는 현존의 세계와 다르며, 죽은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유아가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Furman, 197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성인이나 교사들이 죽음에 대하여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유아기에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긍정적인 두 번째 효과는,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을 때,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과장된 환상이나, 공포 및 두려움

등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죽음에 대하여 유아들의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하여 지나친 환상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Nelson, 1979),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죽음에 대하여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Gordon, 1979)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준비교육의 성과는 유아들이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Grollman, 1990), 유아기에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세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을 때, 유아들에게 죽음이란 행복과 함께 공존하는 삶 그 자체라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유아들이 죽음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준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준비교육은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와 삶을 재인식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보다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교육'(김옥라, 1984)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죽음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죽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들은 유아에게 죽음개념 교육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인 죽음의 사태에 대한 유아들의 대처 능력 형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의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죽음에 대하여 가지게 될 '죄의식'과 '자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죄의식과 자책을 가지게 되지만,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죽음이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점을 유아들에게 이해시킴으로서(Michaelene, 1998),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과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아기에 반드시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충격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하여 가지게 될 '분노'와 '슬픔'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세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가지게 될 '두려움'이나 '공포'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성인들은 유아들에게 죽음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죽음개념 교육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교사들이 당면하는 죽음개념 교육 실천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교사 개인적 차원, 교육 정책적 차원, 그리고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지적하였다.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실천상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첫 번

째 어려움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성패는 교사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Walsh, 198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교사들은 죽음개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죽음개념 교육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풍부한 사전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사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주는 우울한 분위기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나이 어린 자녀들과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회피하고 꺼리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권성자, 1984; 김남주, 1993; 김상희, 1986; 정경숙, 199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비탄을 자아낼 수 있는 무거운 주제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가질 때,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실천상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죽음이라는 주제가 정상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유아 죽음개념 교육 및 준비교육이 정상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교사교육을 실시한다면,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개념 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치원을 비롯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을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옥라, 199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사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죽음 주제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의 부족이다. 본 연구의 유아교사들은 죽음 주제와 관련된 교육용 지침서와 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된다면, 유치원 현장에서 보다 성공적인 죽음개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성공적인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용 자료들이 보급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실천상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이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밝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반면, 죽음과 같은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질 때, 부모들은 죽음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유아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도(Walsh, 1980)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부모들의 편견이 유치원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실천에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유치원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앞서,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편견과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사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죽음'을 보는 사회문화적 시각의 차이이다.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의 죽음개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죽음

개념 교육 및 준비교육이 종교와 결부될 때 특히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죽음개념의 형성은 사회 문화적 요인인 사후 개념이 유아의 성별, 종교 유무, 죽음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정은미, 1999; Koocher, 197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차원에서의 죽음을 보는 시각적 차이와,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유아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직전 교사교육 및 현직교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죽음이란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며, 유아들이 성장과 더불어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현존세계에서의 실제경험이다. 따라서 성인이나 교사들은 '죽음'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야 하며, 유아교육에서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더 이상 금기시하고 제외할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정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경험하게 될 죽음에 대하여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삶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의 죽음개념 형성은 유아의 연령의 증가와 관계가 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획득빈도수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유아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경험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의 시기는 유아들에게 필요하다 판단

될 때가 적기이며, 이러한 즉각적인 교육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나 교사들이 죽음 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유아들에게 죽음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나 중재교육프로그램을 구안·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 및 죽음준비교육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교리 혹은 철학에 바탕을 둔 개념적 설명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현존 세계에서의 죽음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죽음에 대하여 유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고, 솔직한 정보의 제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죽음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교육이야말로 유아들이 죽음에 대하여 막연하게 가지게 될 환상이나,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죽음에 대한 사회 문화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넷째,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유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경험하게 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죄의식'과 '자책',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나 '공포' 등을 지체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유아기에 실시되는 '죽음개념 교육'은 유아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시너지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죽음에 대한 연구가 유아의 종교·성별·연령 등의 변인과의 상관연구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를 벗어나, 유아의 죽음경험 유무 등 유아

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죽음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유아들의 심리 상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성인의 죽음준비교육에 비해 거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유아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변화를 가짐으로써 유아의 죽음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질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성자(1984).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80).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주(1984). 아동의 죽음 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1986).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도 및 부모와 교사의 의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남(1993). 아동의 죽음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 사람, 동물, 식물의 죽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2000). 질적 연구방법의 특징. **충북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20-46.
- 김옥라(1994). **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가?** 서울 :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 서현아(1998). 연령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 19(1), 99-117.
- 유혜령(1998). 교재·교구 경험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유아교육학회 1998년도 연차 학술대회, 유아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113-135.
- 이용숙·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방법과 적용**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정희(1988). 아동의 죽음개념형성 및 그 중재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숙(1993). 아동의 죽음 하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2005). 가족과 또래관계에 대한 유아의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숙(1985).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인지적 발달과의 관계 :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숙(1998).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논문집**, 21, 267-293.
- 정은미(1999). 종교와 죽음경험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 개념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rich, L. M.(1993). The grieving child. *Learning*, 93(1), 40-43.
- Anthony, S.(1967). The child's idea of death. In T. Ralbot (Ed.), *The world of the child*(pp. 212-283). New York : Anchor.
- Bolduc, J.(1972). A developmental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death and age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death(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7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 2758A.
- Childer, P., & Wimmer, M.(1971). The concept of death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2, 1299-1301.
- Cotton, C. R., & Range, L. M.(1990). Children's death concepts; Relationship to Cognitive Functioning, age, experience with death, fear of death, and hopelessn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123-127.
- Evans, B. J.(1982). Death of a classmate : A teacher's experience dealing with tragedy in the classroom.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52, 104-107.
- Furman, E.(1974). *A child's parent dies : Studies in childhood bereavement*.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Gartley, W., & Bernasconi, M.(1967). The concept of death in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10, 71-85.
- Gesell, A., & Ilg, F. L.(1946). *The child from five to ten*. New York : Harper & Bros.
- Gorden, A. K.(1979). *How to teach children about death*. New Jersey : Prentice-Hall.
- Grollman, E. A.(1976). *Talking about death*. Boston : Beacon Press.
- Grollman, E. A.(1990). *Talking about death*, Boston : Beacon Press.
- Hoffman, S. I., & Strauss, S.(1985).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ncepts of death. *Death Studies*, 9, 469-482.
- Hornblum, J. N.(1978). Death concepts in childhood and their relationship to concepts of time and conservation(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197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 2146A.
- Kane, B.(1979). Children's concepts of death.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4, 179-189.
- Kasternbaum, R.(1967). The child's understanding of death. In E. A. Grollman(Ed.), *Explaining death to children*(pp. 94-104). Boston : Beacon Press.
- Kasternbaum, R., & Costa, P. T.(1977).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deat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 225-250.
- Koocher, G, P.(1973). Childhood, death and cognitiv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9(3), 369-375.
- Krosnow, J. E.(1992). The impact of experience on children's conception of death, doctoral dissertation, 4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Lagorio, J.(1993). *Life cycle : classroom activities for helping children live with change and loss*. Tucson, AZ : Zephyr.
- Maurer, A.(1966). Maturation of concept of death. *British Journal of Medicine and Psychology*, 243-248.
- McIntier.(1993). Guiding the child through death and grief,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arondelet mangement instutite, mobile. AL.

- McIntier, M. S., Angle, C. R., & Struempfer, L. J. (1972). The concept of death in Midwestern children and young.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123*, 527-532.
- Melear, J. D.(1973). Children's conception of death. *Journal of Psychology, 123*, 254-268.
- Merriam, S. B.(1994). *Case Study Resea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허미화 역(1994). **질적 사례 연구법**. 서울 : 양서원.
- Michaelene, M.(1998). *A Good Grief Guide Book for Kids Dealing with Loss*. Indiana : Abbey Press. 노은정 역(2003). **슬플 때도 있는 거야**. 서울 : 비룡소.
- Morgan, J. C., & Morgan, R. L.(1977). *Psychology of Death & Dying*. New York : Cambridge Book Company.
- Nagy, M.(1948). The child's theories concerning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73*, 3-27.
- Nelson, M.(1979). Children's concepts of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134*, 137-139.
- Orbach, I., & Glaubman, H.(1987). Children's perception of death as a defensive pro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671-674.
- Rochlin, G.(1967). How younger children view death and themselves. In E. A. Hrollman(Ed.), *Explaining death to children*(pp. 51-86). Boston : Boston Press.
- Safier, G.(1964). A study in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and death in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5*, 285-295.
- Schonfeld, D. J., & Kappelman, M.(1990). The impact of school based education on the young child's death concepts. *Death Studies, 13*, 593-604.
- Schaefld, D., & Kappelman, M.(1992). Teaching elementary schoolers about death : The toughest lesson. *The Education Digest, 58*, 16-20.
- Smilansky, S.(1981a). Different mourning patterns and the orphan's utilization of his intellectual abilit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death. *Avances in Thanatology, 5*, 39-55.
- Speece, M. W., & Brent, S. B.(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 A review of three components of a death concept. *Child Development, 55*, 1671-1686.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ternlicht, M.(1980). The concept of death in preoperational petarded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157-164.
- Swain, H. L.(1979). Childhood views of death. *Death Education, 2*, 341-358.
- Tallmer, M., Pormanek, R., & Tallmer, J.(1974). Pactors influencing children's concepts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 17-19.
- Vernon, G. M.(1970). *The sociology of death*. New York : The Ronald Press.
- Walco, G.(1982). Children's concepts of death : A cognitive training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90th annual conversation of APA*. Washington D. C. : Hemisphere.
- Walsh, H. M.(1980). *Introducing the young child to the social worl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poration Inc.
- Ward, B.(1993). *Good grief*. London :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Weininger, O.(1979). Young children concepts of dying and dead. *Psychological Reports, 44*, 395-407.
- Westmoreland, P.(1996). Coping with death : Helping students grieve. *Childhood Education, 72*(3), 157-160.
- White, E., Elsom, B., & Prawat, R.(1978). Children's conceptions of death. *Child Development, 49*, 307-310.